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을 맞으며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을 맞으며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하시였다.

뜻깊은 《백두산》 기념권총 수여식이 7월 26일 오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하시기 위하여 수여식장에 나오시였다.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항일대전과 반미대전의 불바다를 헤쳐온 투사들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여하신 권총을 신념과 의지의 기둥으로 삼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을 억척같이 지켜섰던 선군시대 군지휘성원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백두산》 기념권총을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심장에 품어 안고 그 어떤 천지지변이 닥쳐와도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보위,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을 당기를 우리러 엄숙히 맹세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군사사상, 명활 무쌍한 지략과 세련된 령군술로 혁명적 당군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다함없는 축원의 경례를 드리였다.

수여식에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박정천 조선인민군 차수와 조선인민군 군종 및 군단급단위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호위사령관, 호위국장, 호위처장,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을 비롯한 각급 무력기관의 주요지휘관들,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여식에서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우리 군수로동계급이 새로 개발생산한 《백두산》 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하려 한다고 하시면서 이는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새세대 군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로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이 영광스러운 우리 당과 국가를 위한 열렬하고 진실한 충성심을 지닌 참다운 총대혁명가로,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투철한 혁명정신이 깎 들어찬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로, 주체의 군사사상과 군사리론, 군사전법에 정통한 유능한 군사활동가들로 철저히 준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당을 따라 멀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리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의 징표로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뜻깊은 《백두산》 기념권총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수여해주신 《백두산》 기념권총을 받아안은 무상의 영광을 지닌 군지휘관들은 준엄한 결전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게 될 혁명의 무기를 가슴마다에 엮고 김정은원수님과 당중앙위원회에 다지는 충성의 맹세를 함창하였다.

군지휘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무기를 틀어쥐고

받은 군지휘관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이 새겨진 《백두산》 기념권총을 높이 추켜들고 김정은원수님을 위하여 한목속 바쳐 싸워나갈 심장의 결의를 열광적으로 리쳐올리면서 당의 믿음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않고 전군을 최정예화, 최강군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철저한 립전태세에서 조선로동당의 대업을 굳건히 받들어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박정천 조선

인민군 차수와 군지휘관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값비싼 희생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초석을 닦은 위대한 년대의 영웅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을 마련한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불멸의

공훈은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면서 련사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넋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제 6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성 대 히 진 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은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 속에 제6차 전국로병대회가 7월 27일 수도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었다.

대회에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조국수호



군인의 본보기로 뚜렷이 새겨져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쟁로병동지들의 절절한 당부는 새세대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전승시대의 정신과 넋을 그대로 이어받아 당과 혁명, 조국을 위하여 한복숨 기꺼이 바치는 청년영웅이 되며 어떠한 천지풍파속에서도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 일편단심 변함없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수령결사옹위에 출기차게 이어지는 전승의 력사가 있고

성전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전쟁로병들과 전사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도당위원장들과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존엄, 백전백승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울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공화국의 전승사에 불멸의 공헌을 한 참된 애국자들인 전쟁로병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에 즈음하여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과 전체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 전사공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또한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유명무명의 혁명렬사들과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 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과 로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시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고귀한 투쟁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의 영웅적삶을 값높이 평가하시었으며 전쟁로병들이 새세대들에게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신념의 피줄기로 굳건히 이어주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에 대한 값높은 평가와 존경, 숭고한 동지적 사랑과 고결한 혁명적의리가 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은 대회 참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쟁로병들을 위대한 력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으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온갖 은정을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리었다.

대회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인 공화국영웅 김승운이 새세대들에게 당부하는 토론을 하였다.

그는 전화의 나날 해방의 은인이시며 새 조선의 영명한 수령이신 김일성장군님은 곧 조국이시였으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의 신념의 기둥이시였다고 하면서 열백번 쓰러진다고 해도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땅, 고마운 내 나라를 절대로 빼앗길수 없다는 불굴의 신념과 억척만병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싸워 승리의 7.27을 안아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로병들은 후손들에게 조국수호정신을 유산으로 넘겨주게 된것을 긍지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강철의 령장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그토록 마음 쓰시는 우리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며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 당만을 믿고, 당부하면서 그러면 우리 나라는 꼭 이긴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조춘혁, 인민군군인들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군관 지영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로병동지들에게 온 나라 전체 청년들과 인민군군인들의 마음을 다 합쳐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투적 경례를 드리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내고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준 로병동지들이 자기들의 가슴속에 참된

사회주의승리도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보위하며 당정책을 맨 앞장에서 관철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장은 전쟁로병들을 혁명의 로세대로,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내세우며 참된 삶을 빛내여주는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전체 참가자들의 충성의 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전국의 모든 전쟁로병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며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었다.

제6차 전국로병대회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창조되고 출기차게 이어져온 승리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빛내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공화국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훈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주 체 1 0 9 (2 0 2 0) 년 7 월 2 7 일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오늘은 7.27입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간 력사 속에 뚜렷이 새겨진 위대한 전승, 이 《전승》이라는 말을 외워보며 누구나 가슴벅찬 긍지를 안고 맞이하는 승리의 7.27입니다.

오늘 이렇게 승리의 명절에 즈음하여 그 위대한 력사를 만들어내신 존경하는 로병동지들을 이 대회장에 다시 모시게 된 기쁨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신 귀중한 스승들인 로병동지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예순일곱돛에 즈음하여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신 전쟁로병동지들과 전체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 전시공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유명무명의 혁명렬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삼가 드립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 주며 전투적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 인민지원군 력사들과 로병들에게도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전승세대가 흘린 피와 땀, 그들이 발휘한 위대한 정신과 용사들의 송고한 희생이 오늘 우리의 조국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것입니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자랑스러운 전승세대인 동지들을 언제나 보고싶고 동지들의 영웅적인 삶을 긍지높이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것이 우리 당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대회는 전쟁로병동지들의 공적을 후세에 더욱 뚜렷이 전하고 1950년대의 투쟁정신을 이어 선렬들의 송고한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950년대에 전승세대가 세운 특출한 위훈과 후대들에게 남긴 정신적재부와 유산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것으로 깊이 간직되고있습니다. 현대 력사에서 우리의 7.27이 가지는 중대하고 심원한 의미는 결코 한 나라와 민족이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고 인류전쟁사에 빛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다는 그 자체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갖 창건된 우리 공화국과 수천만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조국방위전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후 랑전의 시작과 함께 벌어진 자주력량과 지배세력,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최초의 전면전쟁으로서 그 치열성과 대결의 심각성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아간에 인구와 령토는 물론 무장 장비와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대비조차 할수 없었던 이 전쟁에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군사적 공세를 막아내고 우리의 령토와 자주권을 피로써 사수해낸것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특대사건이었습니다. 7.27은 지난날 약속, 약속이족으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와 인민을 세계가 경탄하여까지 않는 영웅의 나라, 영웅인민으로 력사무대에 당당히 내세우고 지구상에서 반제자주와 사회주의, 민족해방혁명의 세찬 폭풍을 안아오게 한 전환적계기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7.27이 없었다면 현 세계에서 가장 존엄 있고 자주적인 강국, 인민의 나라로 영광떨치는 사회주의조선의 오늘도 없었을것이며 아시아와 전세계를 저들의 지배권에 두려는 제국주의의 오만한 시도도 막아내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새 력사를 방향짓게 하고 우리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승리해나갈수 있는 긍지높은 전통과 재부를 마련하였으며 세계의 정치구도를 변화시키고 자주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힘차게 추동한 여기에 7.27이 가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송고한 애국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의 승리였고 불의와 반동에 대한 정의와 진보의 승리였으며 력사의 퇴물인 자본주의에 대한 인류의 미래인 사회주의의 승리였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수성을 바로 알게 하고 영원히 잊지 않게 한 조국해방전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부모와 형제자매들, 귀중한



전우들과 벗들을 앗아가고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을 딛고 일떠선 전승세대의 전설적인 위훈과 더불어 위대한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이 창조되었으며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 견인불발성은 우리 인민의 특유의 기질로 공고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승세대는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조선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력사를 창조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정신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러운 세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고 조국의 한치 땅을 피로써 지킨 인민군전사들과 전쟁승리에 모든것을 다 바친 후방의 인민들에 의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창조한 수령중심의 단결의 정신, 억척만반 죽더라도 원수를 치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맨손으로도 총포탄을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영웅조선의 기상으로 높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당은 조국해방전쟁의 불길한 헤쳐는 전승세대를 우리 혁명전통계승의 초석을 마련한 자랑스러운 세대로 높이 내세우며 떠받들고있는것입니다.

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우리의 전승세대는 당의 부름따라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천리마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들이며 송고한 정신과 념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입니다. 전승세대가 모든 분야에서 주력으로 활약했던 시대에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가장 눈부신 전진과 비약이 이루어졌으며 전쟁영웅들의 위훈담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고 평화시기에 나서자란 모든 세대의 자랑으로, 혁명적삶과 인생관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전쟁로병동지들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로부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교생은 자신들이 도맡아 겪으면서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훌륭한 혁명가, 애국자들이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혁명의 보배들입니다. 우리 당은 동지들과 같은 고결한 후대관, 혁명관을 지닌 혁명선배들을 모시고있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영예로 여기고있으며 전승세대들을 누구나가 다 영원토록 따라배워야 할 귀감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전후 근 70년간의 력사는 결코 평화시라고 할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었으며 우리의 발전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를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의 위협과 압박은 각각 가중되었습니다.

우리는 불멸의 7.27이 안겨준 승리의 정신과 의지로 우리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국력강화의 어려운 길을 스스로 택하였으며 저마다 눈앞의 《번영》만을 추구할 때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수 있는 절대적힘을 가져야 했기에 남들같으면 백년도 더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로역경을 뚫고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반동들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게 변했습니다.

전쟁은 넘볼수 있는 상대와만 할수 있는 무력 충돌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하게 할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 될것입니다.

세대를 이어오며 해마다 맞이하는 7.27이지만 우리 국가가 세상이 무시할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전략적지위에 올라선 오늘날 7.27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류타르며 전승의 의의와 로병세대들의 공적은 더욱 값지고 긍지높은것입니다.

동지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많은것이 변화했지만 전화의 력사들, 로병동지들이 발휘한 송고한 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을 새로운 투쟁으로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병동지들의 얼굴에서 그 준엄한 년대에 전진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과 사회주의 건설에 한몫한 잊을수 없는 력사들의 모습을 다

그려보고있으며 그들앞에 뗏뗏할수 있게 더욱 분투 할 각오를 굳게 가다듬고있습니다. 전쟁로병동지들이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한것처럼 오늘의 세대들은 동지들의 념을 이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전승의 력사는 위대한 정신으로 무장한 인민이 위대한 기적을 낳는다는 철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금문자로 새겨주어 누구나 역경속에서도 굴함없는 강직한 투사로, 새로운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들로 먼저 간 력사들앞에, 로병동지들앞에 한생을 부끄럼없이 살도록 할것입니다.

우리는 총이 부족해 남해를 지척에 둔 락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권과 생존권이 담보되어야 행복을 가꾸고 키울수 있으며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자면 자기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법철할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것입니다.

동지들!
전화의 용사들이 결전의 수많은 낮과 밤들에 그리도 소중한 그대들은 삼천리강토우에 펼쳐질 아름다운 인민의 락원이였을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렬들이 바라던 강국의 꿈과 리상을 반드시 실현하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해 용기백배하여 투쟁할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전승세대의 삶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조국번영의 한길에서 승리자로 한생을 빛내야 합니다. 오늘의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쟁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조국수호자들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친구마다에서 자랑찬 승전고를 힘차게 울려나가도록 할것입니다.

또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강한 혁명정신과 용맹한 전투적기질과 송고한 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우리 식 전법에 정통한 일당백의 만능싸움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승의 력사는 리수복, 조군실, 강호영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의 위훈을 청년이라는 부름과 더불어 후세에 전하고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을 죽음에 맞받아나가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전화의 영웅들처럼 당과 조국을 먼저 알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할줄 아는 열혈의 충신, 견실한 혁명가로 키우겠습니다.

하여 로병동지들이 피흘려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라는 우리의 위대한 전통이 대를 이어 계승되도록 할것입니다.

전사회적으로 로병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며 우대하는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로병동지들이 앞으로도 로당익장하여 영광스러운 한생을 빛내어나가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모실것이며 동지들의 건강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 근로단체조직들과 전체 인민이 로병동지들을 자기의 친부모로 따듯이 정성다해 모시는것을 송고한 도리와 의무로 간직하고 온갖 성의를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과 불멸의 위훈은 영원히 우리 후대들의 심장에 뛰는 붉은 피를 더욱 진하게 해줄것이며 그 위대한 정신과 업적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세계 《최강》을 자처하는 미제와 그 추종무리 군대를 무릎꿇게 하고 혹독한 년대와 모진 세월도 다 이겨내던 것처럼 강인한 로병동지들이데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었고 여기에 계시는분들마저도 머리에 흰머리가 내려앉는것을 피하지 못하시는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로병동지들!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나는 존경하는 전국의 로병동지들이 오래오래 건강장수하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시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전승 7.27 만세!

타오르는 반미자주화의 불길

남조선에서 8.15를 앞두고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를 배격하고 당국의 대미공중정책을 규탄하는 각계층의 대중적인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25일 6.15남측위원회와 민주로총을 비롯한 180개의 각계층 운동단체들로 구성된 8.15인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8.15추진위원회)는 서울과 대구, 부산, 경상북도를 비롯한 각 지역들에서 《한미위정교섭 해체! 한미합군사훈련 중단! 7.25법국인행동의 날》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미군철수》, 《한미실무그룹 해체》, 《미군방위비중액반대》, 《병사화정정체결》을 요구하는 비상시국대회, 평화현수막행진, 기자회견, 반미선전물전시회 등을 다양하게 벌리면서 반미기운을 크게 고조시켰다고 한다.

특히 8.15추진위원회는 수

많은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과 2만 2 400여명의 개별적인 인사들이 시명난 비상사국적인 성격을 띠면서 한층 격렬해지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장점한 때로부터 75년이 되어온다.

이 75년이란 세월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강권과 전횡, 살륙과 약탈을 일삼아온 범죄의 나날이었다.

미군은 남조선에 장점한 첫날부터 남조선인민들을 애당초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아무 거리낌없이 모욕하고 마구 죽이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나물 뜯는 소녀를 《평》이라고 하면서 소아적인 군사노선총격 사건과 부평소년전승기계착사건, 과주나무군사살상, 동두천러인살상사건, 울금이사해사건, 장강차로 지나가던

두 녀학생을 야수적으로 깔아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미군에 의해 감행된 살인만행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남조선인민들을 한갓 《들쥐》로, 강탈과 약탈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것이 바로 남조선장점 미군이다.

이런 오만한 사고방식과 횡포성이 남조선에 온갖 강권과 전횡, 살륙과 테러가 살판치는 암흑천지,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친인공노당 행위로 남조선에서는 전후시기부터 2004년까지만 해도 8만 3 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미국의 남조선장점을 두고 《지구상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주종관계, 예속관계, 굴종관계》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강요하는 방위비증액과 첨단전장장비구

입장요, 합동군사연습개행 등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것들은 미국만을 위한것으로서 남조선에는 민생과란과 심각한 경제적과국난을 불러올뿐이다.

오늘 남조선에 한갓 식민지예속국, 무기판매시장으로 보는 미국의 국도에 이른 멸시와 예속화정책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과의 《동맹》을 부르짖으며 보수세당과 조공도 다름없는 사대적근성과 외세의존정책에 매여달리는 친미매국세력들이 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째 섬겨버리는 쓸개박진 것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친미사대매국세력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앞으로도 절기차게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내외 호전 세력들의 전쟁 연습 행동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얼마 전 남조선에서는 《6.25전쟁 70주년 유엔군참전의 날 기념식》이라는 광대극이 벌어졌다.

여기에는 돈에 눈이 어두워 조선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매진 의 끈을 보고 겨우 목숨을 건진 산송장들을 비롯하여 어중이떠중이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런 속에서 남조선 국방부장관은 《유엔군사령부》조각 70년을 계기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에게 《축하사신》을 보내면서 낮간지러운 소리를 잔뜩 늘어놓았다고 한다.

이것이 수십년전 북침전쟁을 도발한 저들의 범죄적정체와 수치스러운 참패상을 망각속에 깊숙이 묻어두고 반공화국적대감을 적극 고취하여 이 땅에 침략전쟁의 참극을 재현해보려는 흉심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7.27은 공화국에 있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무분별하게 접어들었던 도발자들을 멸망의 내리막길에 몰아넣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긍지높은 승리자의 명절이며 우리 민족사와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것이 아닐수 없다.

그런다고 해서 력사의 진실이 달라질수야 있겠는가.

력사의 패배자들이 허세를 부리며 해마다 이런 광대극을 반복하는것이야말로 제 낮짝에 흠뻑칠하는 못난 이들의 추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남조선의 군부가 이미 없었어야 할 평전의 유물을 아직까지 싸고들며 《평화》의 보자기로 분칠하고있는것은 언제까지라도 외세를 등에 업고 기어오르며 부침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6.25 뒤에는 공화국의 빛나는 승리로 되는 7.27이 있다.

력사의 법칙적인 진로를 무시하고 또다시 최악의 력사를 되풀이하려는것은 스스로 자멸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본사기자 안복순

변함없는 동족대결야망

남조선 군부호전세력이 반공화국 군사적대결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남조선군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특공 3사단의 생방훈련, 해병대의 합동상륙훈련,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의 공격편대군훈련, 지상 및 공중비상대기 항공차단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수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술, 기동, 사격, 략화, 도하, 반화환, 반격, 도망 등 중화된 각종 단종훈련들을 벌여놓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훈련들에 대해 《년례적》이며 《통상적》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있지만 그의 침략적성격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이 시각도 남조선군부는 외세의와 합동군사연습강행

무분별한 군사적대결이 초래할것은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남조선이 8월로 예정되어있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속에서는 《국도로 침에 해진 조선반도정세를 통제불능의 최악의 상태에 몰아갈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고 한다.

결코 우연한 평가가 아니다.

원래 미군부가 이번 하반기연습이 생방훈련의 전두준비 및 실동훈련으로서 연합방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립장을 고수해 왔다면 남조선군은 전시기작통제권반환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에서 진행할것을 고집하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단단히 틀어쥐려는 상권과 임기내에 허울뿐인 전시기작통제권이라도 넘겨받아 《치적》을 쌓으려는 하수인사이에 벌어진 일종의 강박과 상할진인 셈이다.

미국과 남조선이 《8월축소강행》에 합의한데 대해

참패의 력사를 가리울수 없다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특대사변이다.

반대로 공화국을 알리고 함부로 덤벼들었다가 력사가 알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한 도발자들에게는 돌이켜보게조차 끔찍한 수치의 날로 되겠다.

그런데 해피한 《기념행사》를 벌이고 패배를 《승리》로 둔갑시키는 놀음을 벌리었으니 낮가죽이 두리운자가

참패의 력사를 가리울수 없다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특대사변이다.

반대로 공화국을 알리고 함부로 덤벼들었다가 력사가 알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한 도발자들에게는 돌이켜보게조차 끔찍한 수치의 날로 되겠다.

그런데 해피한 《기념행사》를 벌이고 패배를 《승리》로 둔갑시키는 놀음을 벌리었으니 낮가죽이 두리운자가

변함없는 동족대결야망

남조선 각계층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군대가 전염병방역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는데 (한국군)은 심기가 편안해서인지 아니면 지금의 엄중난 상황을 호기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정말 불안해서 못살겠다.》 등의 불만과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현실은 결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도 속으로는 공화국과 기어오르는 군사적으로 대결하려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변하지 않은 동족대결속심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어울리지 않고 계속 무분별한 전쟁연습과 무력강제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망동은 조선반도에 군사적긴장상태를 형성하여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진

변함없는 동족대결야망

남조선 각계층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군대가 전염병방역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는데 (한국군)은 심기가 편안해서인지 아니면 지금의 엄중난 상황을 호기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정말 불안해서 못살겠다.》 등의 불만과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현실은 결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도 속으로는 공화국과 기어오르는 군사적으로 대결하려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변하지 않은 동족대결속심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어울리지 않고 계속 무분별한 전쟁연습과 무력강제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망동은 조선반도에 군사적긴장상태를 형성하여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진

우려 민족의 뉘를 빼앗으려는 범죄적인 노예교육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고 수십년동안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황국신민화》를 노린 식민지노예교육이다.

《황국신민화》란 조선사람을 일본인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사람들을 영원히 저들의 노예로 만들며 침략정체실현에 최대한 리용하려는 범죄적목적이 깔려있었다.

이로써 일제는 조선에서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조선민족을 《황국신민화》하기 위해 류례없이 악독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조선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진보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민족교육운동이 벌어졌다.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 운동은 점차 활기를 띠었으며 사립학교의 수는 수없이 늘어났다.

여기에서는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민족풍습과 일반상식도 가르쳐주었으며 애국주의교양도 하였다.

이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어린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초시기부터 민족교육을 강고히 말살하기 위해 미쳐 날뛰었다.

일제는 1908년 이른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결과 1910년에 이르러 조선에서 사립학교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일제는 1911년 조선에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 이른바 《근본방향》이라고 하는 《조선교육령》이라는것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학교에서 조선말과 글대신 일본어를 국어로 하여 가르치도록 강요하였다.

1931년 10월 왜왕은 문부대신 다나카에게 내린 칙령에서 조선에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강화와 《전진한 국민양성》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것 등 이른바 《황국신민화》를 다그칠때 대한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 교육기관들이 일본의 교육제도처럼 개편되고 학생들에게 《일본정신》을 배양시키기 위한 수업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전에 왜왕의 《교육칙어》를 따라외어야

면사포나 쓴다고 더러운 몸통이 가리워지랴

최근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몸가꾸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혁신》과 《새로운 정당》의 상표가 붙은 《비누》로 《보수》의 진매를 씻어버리겠다고 흥내를 내는가 하면 새롭게 장식한 《정당정책》이라는 면사포도 뒤집어쓰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당정책》의 면사포에 매달아놓는 각종 《장식품》들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그것도 그렇듯이 《미래통합당》이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과 《3.1독립운동정신의 계승》을 저들의 면사포에 하나의 장식품처럼 달아놓은것이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보수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해왔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미래통합당》은 보수정당사상 처음으로 정당정책초안에 4.19인민봉기, 부마항쟁, 5.18광주인민봉기, 6월일민항쟁 등을 리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미패동합당》 조상들의 집권시기 사대매국정치와 파쇼독재를 반대하여 싸운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들이 다. 그런즉 《미래통합당》이 《민주화운동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것은 자기 조상들이 걸어온 범죄의 행로를 부정하는것으로서 전혀 동에도 닿지 않는 기만극에 불과하다.

《미래통합당》의 《정당정책》개정내용이 몸통은 그대로인데 옷만 바꾸어입는 기만행동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3.1독립운동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새롭게 규정된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 시각에도 일본의 과거청산의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의

면사포나 쓴다고 더러운 몸통이 가리워지랴

최근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몸가꾸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혁신》과 《새로운 정당》의 상표가 붙은 《비누》로 《보수》의 진매를 씻어버리겠다고 흥내를 내는가 하면 새롭게 장식한 《정당정책》이라는 면사포도 뒤집어쓰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당정책》의 면사포에 매달아놓는 각종 《장식품》들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그것도 그렇듯이 《미래통합당》이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과 《3.1독립운동정신의 계승》을 저들의 면사포에 하나의 장식품처럼 달아놓은것이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보수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해왔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미래통합당》은 보수정당사상 처음으로 정당정책초안에 4.19인민봉기, 부마항쟁, 5.18광주인민봉기, 6월일민항쟁 등을 리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미패동합당》 조상들의 집권시기 사대매국정치와 파쇼독재를 반대하여 싸운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들이 다. 그런즉 《미래통합당》이 《민주화운동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것은 자기 조상들이 걸어온 범죄의 행로를 부정하는것으로서 전혀 동에도 닿지 않는 기만극에 불과하다.

《미래통합당》의 《정당정책》개정내용이 몸통은 그대로인데 옷만 바꾸어입는 기만행동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3.1독립운동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새롭게 규정된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 시각에도 일본의 과거청산의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의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3)

시원한 그늘을 지어주는 느티나무들

공화국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유명한 느티나무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역사 유적의 하나로 해외동포들에게 널리 알려진 석왕사의 느티나무도 있다. 석왕사에는 600여년전부터 자란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끝까지를 따라 느티나무

들이 하늘을 메우며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다. 개성시에 있는 역사유적 고려성군관아마당에서 자라는 느티나무도 1000여년이나 자란 국내에서 가장 큰 느티나무들중의 하나이다. 느티나무는 고산지대와 벌방지대, 마을과 길가

비롯하여 어디서나 잘 자라는 생활력이 강한 나무이다. 또한 꾀고 무늬가 고와 견축, 가구, 배, 조각의 재료로 많이 쓰이고있다. 느티나무는 일정한 높이까지 미끈하게 자라다가 가지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닭모양을 이루는데 가지와

잎이 많고 그 모양이 아름다와 정자나무로도 불리워왔다. 피야별이 내리쬐이는 삼복철인 요즘 시원한 그늘을 지어주는 느티나무들이 평양의 거리들에 우거져 수려한 풍치를 한껏 돋우고있다. 특히 평양역앞에서부터 창광읍식적거리의 양옆으로

수종이 좋은 느티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은 볼수록 이채롭다. 공화국에서는 이처럼 관상용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쓸모가 큰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 거리와 마을,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활발히 벌어지는 음악정보봉사활동

공화국의 하나음악정보센터에서 특색있는 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음악정보자료를 봉사하고있다. 방대한 음악정보자료를 수집, 분류, 구축한데 기초하여 수많은 음악다매체편집물들을 제작하고있는 하나음악정보센터에서는 최근에만도 음향정보, 편지성, 다기능성이 보장된 다양한 음악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서도 리용할수 있고 또 예술분야의 다양한 자료들도 열람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이곳에서는 전문가적인 방조가 없이도 자체로 음악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며 어린이들의 음악교육과 지능개발에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제

품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류다른 관심을 모으고있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하나음악정보센터 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해 음악정보봉사활동은 더욱 다양하고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세면기나 수도꼭지를 깨끗하게 닦는다. 소금과 식초를 섞어 탁이 말끔히 지워지면서 깨끗해진다. —묵은 쌀의 냄새를 없앤다. 전날 저녁에 식초물에 쌀을 씻어 놓는다. 아침에 이

—남비에 뿌려준다. 새로 산 남비를 그대로 사용하면 음식물이 늘어붙기 쉽다. 사용하기 전에 식초를 한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면 음식물이 라는것을 막을수 있다. 본사기자

◆ 가물결은 있어도 장마결은 없다. 가을은 아무리 심하게 들어도 농사가 안되는 정도의 피해에 그치지않 장마가 저서 큰물이 난 뒤에는 집과 가산까지 물이 다 씻겨내려가므로 아무것도 거둬들일 필요가 없다. 장마피해가 더 클수록 물을 버려 이르던 말. ◆ 들은 말 들으면 버리고 본 말 본대 버린다. 남에게서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

담고기는 찢고 돼지고기는 얇게 썰다. 파와 마늘은 다지며 고기국물은 간장, 소금, 맛가루를 넣고 끓여 국물을 만든다. 고기에 소금, 간장, 파, 마늘을 두고 무치며 김치무우와 오이는 버들잎모양으로 썰어서 소금, 간장, 파, 마늘을 두고 무친다. 파, 마늘, 고추가루, 깨, 소금, 참기름, 간장을 섞고 국수물을 약간 부어 양념장을 만든다. 농마에 백반물과 풀은물을 두고 익반죽하여 눌러 앉아서 국수사리를 만든 후 양념장에 비벼 그릇에 담고 고기, 오이, 김치, 무미를 넣고, 실타입, 고추로 곱고 국수국물을 붓는다. 본사기자

사화

왜적을 치자 (1)

글 김정민, 그림 리성일

정미년, 1907년 7월 그믐께의 어느날 밤이었다. 왜놈들의 강요에 의한 《정미조약》의 날조로 한양강안이 한동안 소란스럽더니 이 며칠째는 저오기 평온한 날이 흘러가는상실였다. 그러나 어머라 없이 긴장한 저기압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삼복철의 지저운 밤, 달빛을 동진 검군복차림의 한 사나이가 종로거리를 걷고있었다. 그는 시위대(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왕의 호위를 위하여 조직된 군대) 대대에 군복을 둔 관원 권기홍이었다. 고개를 지수구하고 걸어가 그의 입에서는 가끔 탄식같은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군복앞술은 풀어헤쳐졌고 처내런 허벅에 매달린 칼집은 땅에 깔렸다. 특별히 어디를 정하고 걷는 걸음이 아니었다. 피로고 울적한 기분을 가실길 없어 방향없이 내친 걸음이었다. 방금전에 그는 고향에서 아

버지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국운이 쇠진해지니 가운데저 기술어진다고 쓰기 시작한 편지는 자자구구가 가슴저미는 소리로 가득찬것이었다. 왜놈상품이 들어밀리는 바람에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다 세금이 파종하고 빚독촉은 성화같이 온 식솔이 운명을 걸고있던 가계방을 끝내 단아버렸다는것, 호구조칙을 잃어버린 가족이 눈물로 날을 보내는데 집안의 가강한 정상을 보듯못해 너둥생이 몇판돈에 팔려 이인으로서 상양나라에 끌려갔다는것, 이제에는 온 식솔이 기홍이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것, 그레 회담편지를 받으면 도성으로 떠나겠다는사연이었다. 이 소식은 그에게 청천벽력이 아닐수 없었다. 몇판 안되는 군복은 내 훈자의 씩씩이도 오히려 모자라는데 온 가족을 어떻게 먹여살리랴... 자기 어깨에 실리는 너무도 큰 부담에 권기홍은 가슴이

답답해왔다. 「나리—」 누군가 찾는 소리에 그는 번뇌에서 깨어났다. 「인력거를 탑승소」 뉴스그레한 인력거군이 그에게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권기홍은 말없이 걸음을 내질렀다. 「나리, 직선하는셈치구라쵸쇼. 눈이 까만 새끼들이벌써 며칠째 굶었소이다.」 인력거군은 가족이나 울적하던 권기홍의 심사를 더 못혀주었다. 약한자의 우는소리... 어찌면 이렇게 지저리 못한 인생들뿐인가. 「령감, 어대 가서 농사나 짓지 왜 한양바다에서 빈둥거리오?」 역중어린 그의 말에 인력거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랬으면 어복 좋겠사와유. 통산에 몇마지기나마 땅이 있있겠 올사년에 왜군에게 뺏기구 이 노릇을 하지유.」 「통산에요?」 하고 되묻은

권기홍은 걸음을 주춤거렸다. 통산, 너무도 기억이 생생한 곳이었다. 이태전 《올사5조약》이 날조되던 해인 1905년 8월초였다. 왜군은 한양의 통산일대로부터 한강구역까지를 군용지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온지 3천여결을 약탈하였을뿐만 아니라 천여호의 살림집을 헐고 백수집계의 무덤을 마구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출지에 생계를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된 통산과 한강구역의 수천명 농민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그들은 열새동안이나 왜놈헌병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왜놈들의 압박에 시위대도 그들의 진압에 내몰리었다. 권기홍이 없아버리는 농민들을 흠여지라고 총대를 내댈두를 때였다. 갖을 쓴 수염 허연 체소한 늙은이가 앙상한 손으로 그의 목질을 짊 울겨잡았다. 「이놈, 깨도 제 집을 지켜 도적질 무는데 너희놈들은 저 강도같은 왜놈들과 한 짝이 되어 동족을 죽여! 이, 이 개만도 못한 놈들!...」 수업을 우들우들 떨던 로인의 서리발찬 기상이 지금과 같고 하면서 잡은 의병들을 눈앞에서 볼 때마다 더욱 깊어갔다.

그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 자기는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칼을 차고 다니는것인가. 조정과 군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것이 군인의 본분이며 왜국총정의 길이라고 믿고 있던 그로서는 자못 심각한것이 아닐수 없었다. 이 느낌은 《올사5조약》대역부도죄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목을 잘리우는 최후순간까지 왜적을 치고 매국노를 처야 한다면 그들의 절규가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면서도 저주로운 검정군복을 벗어던질 용단은 내리지 못하였다. 어쨌든 나라를 지킬 군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번민과 울분으로 모래길 때마

구슬픈 창가소리에 자못 심란해진 그는 영혼각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에익, 독한 술로 이 울화통을 삭이자. 나뭇베용은 술이란 약자의 객기를 위해 서만 소용되는 물건이라 했다가지만 술 아니면 못 견디겠구나.」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영혼각양으로 발길을 돌리던 권기홍은 그때까지 자기결에서 걸고있는 인력거군에게 지레 몇장을 꺼내주었다. 「아니?...」 「내가 타고온셈치구 받아두요.」 「고마와유, 나리. 밖에서 기다리겠어유.」 권기홍은 로리집에 들어가서 한고향래생으로 자בח한 사이인 최화화를 찾았다. 향화는 어느때건 그의 기분을 리해하고 위로해줄줄 아는 녀자였다. 그런데 오늘은 웬 일인지 시무룩한 기색이었다. 수심 어린 두눈을 차붓이 내리든 채 에들장난감만 만지작거리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삼촌네가 해삼위로 떠났어유. 종매(손아래 4촌누이)들을 불러고 산이 장난감은 소용없이 뒀어유.」 향화의 두눈은 흐려졌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될까요? 왜 우리 참아안만 할까요? 우리 이 장난감보담두 못해요?》 향화는 만지작거리던 오토기를 자빠뜨렸다. 그러나 눈이 동그란 오토기는 흔들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이것 이름이 뭘지 아세요?」 「오토기지 무어야.」 「아니, 점포아바기가 그러는데 오토기라지요. 나 오자. 홀로 독차, 실 립자... 내가 독립하겠다고 오토오토 일어서는게 얼마나 장해요?」 이렇즈음 마당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미담이밖에서 송구스리워하는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 찾는 소리가 들렸다. 「나리, 나리...」 분명 늙은 인력거군의 목소리였다. 권기홍은 문을 열고 마루에 나섰다. 「나리, 저 왜병정이 자꾸 타구가고 못살게 굶니다유. 나리를 모실려구 그 만큼...」 인력거군을 밀어제끼며 양바닥한 키에 어깨가 되바라진 왜놈 오장놈이 기홍의 앞에 다가섰다. 역한 술내가 풍겼다. 「구루마 당신이나 타고 왔는가?」